

10월의 기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 1.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
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
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
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올 해 하반기에도 우리 삶의 계획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나의 죽음, 절망인가? 희망인가?

서양에서는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당 뜰에 묘지가 있습니다. 공
원처럼 꾸민 묘지에는 묘비들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고 많은 사
람들이 거기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지에 단 세 줄로 짧막했지만, 흥미로운 글이 적혀 있는 묘비
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묘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남의 묘비를 읽었
소” 첫 줄을 읽은 그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곳에 서서 그렇게 피식 웃었
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
빨리 다음 줄을 보자 거기에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것이니
까 빨리 준비하시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 돌아보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누구든
지 남의 묘비를 읽을 때 자신은 죽지 않을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묘비를 읽을 때가 다가옵
니다. 사람들은 평소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며 살아갑
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과 종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죽음
의 순간에서 우리가 절망할 것인지, 더욱 큰 소망 안에서 기뻐할 것
인지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이 소망을 향한 죽음인지 절망을 향한 죽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십자가를 잡고, 그리스
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는 영생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
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
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무는 유로 창조적인 역사를 일
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신
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성령 안에서 신앙 생활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
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
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
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
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
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성회안내

2015년 10월 16일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5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 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풍진화학 김종복 장로, 김정환, 나인규, 박예림, 순복
음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안희순, 오주봉, 오현주, 원소선, 이형춘,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010-2726-\*\*\*\*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
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순복음동경교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창립 38주년 성회 개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능력은 내가 주는 것’이고 ‘나를 믿
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
을 때 나의 목회사역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못
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
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그에
따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38주년
을 맞이한 순복음동경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를 이끌길 기대하십니다.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능력도 선물로 주
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 황금연휴 기간이었던 9월 21일 오
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도쿄 나카
노제로홀에 모인 순복음동경교회(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성도들에게 ‘일
본 일천만 구령’을 넘어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다. 숨죽여 말씀에 집
중하던 성도들 사이에서 ‘아멘’이 강하
게 터져 나왔다.

1974년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 세 가정
은 강은순 권사의 집에 모여 가정 예배
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순복음동
경교회의 태동이었다. 1979년 여의도순
복음교회 동경교회라는 이름으로 일본
일천만구령에 나선 순복음동경교회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설교처럼 오
직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능력을 구하며
38년을 달려왔다. 김시초, 우에노, 사이
타마, 카사이, 마츠도 등 각 지역에 지성
전을 세우며 일본 선교의 선봉장이 된 순
복음동경교회는 조용기 목사가 강조한 4
차원 영성이 가져온 놀라운 결실이었다.

순복음동경교회가 아닌 일반 대관홀을
빌려 38주년 기념 특별성회를 개최했다
는 것은 순복음동경교회가 절대 긍정, 절
대 희망의 복음을 안고 ‘생각 꿈 믿음 말’
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며 세계 선교를 위
해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축복성회에는 조용기 목사와 오
랜 친분을 가진 오오가와 츠구미치 목사
(야마토 갈보리 채플)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오오가와 목사는 “조용기 생세
와 레키시노나카데 이치방 오오키이 우
츠와데스(조용기 목사님은 역사상 제일
큰 그릇)”이라며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회는 세계 어디를 가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일본 선교 일천만구령을 계속해 나가자”
고 당부했다.

# 중생과 성령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중략)...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15절)

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 배후에서 일을 하셨지 정면에 나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의 배후에서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선두에서 일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는 성령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8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감춰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 분별함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 3.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사랑의 정성을 다하여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셔들이면, 성령님이 기쁘게 우리와 같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운행하십니다. 거저 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희한한 일이 우리 삶에 생겨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꿈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창조적인 선언을 통해서 운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분에게는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인 외침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창조적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생각을 지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치인들도 새로운 정치로 거듭나겠다고 공약하고, 기업도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홍보를 합니다. 또 악하게 살던 사람이 선하게 살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새롭게 바뀐다고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에서 난 육’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1.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만이 성령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났기에 육신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일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3년 동안 공생애 시대에 들어가자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아들의 뒤에 서서 일하셨습니다. 아들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고 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정면에 나타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 배후에서 서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

### 2.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지금은 아들을 계승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신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보혜사의 이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르다’는 헬라어로 ‘알로스’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다르지만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보혜사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알면 되고, 성령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보혜사란 말인데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상속 받아서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 그 역할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그 이외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 담대함과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 순복음동경교회 38주년 특별축복성회 이모저모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일본 일천만 넘어 세계 복음화” 당부 나카노제로홀 모인 성도들 ‘성령과 동행’ 굳게 다짐



순복음동경교회가 창립 38주년 기념으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특별축복성회를 개최한 건 9월 21일 오전이었다. 경로의 날과 국민의 휴일, 그리고 추분날 등 연이은 황금연휴를 맞아 이날 성회에는 가족 단위 참석자들이 많았다. ‘해피 콘서트’라는 부제에 걸맞게 참석자들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다.

성회가 열린 나카노제로홀은 2000석 규모의 대관홀이다. 대관홀을 택한 까닭은 다 함께 모

여 성대한 축하를 해보자는 의미에서였다. 성회에는 순복음동경교회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달려온 순복음오사카교회 성도들과 인근 순복음교회 성도들, 순복음 선교사들도 있었다. 성회 시작 40분 전 홀이 개방됨과 동시에 성도들은 앞다퉈 앞자리에 앉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찬양팀의 역동적인 찬양으로 시작된 축복성회는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장 김유동 목사가 대표로 기도했다.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의 소개와 통역으로 강단에선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성도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봉독된 고린도 후서 6장 1~2절로 ‘4차원의 영성으로 살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을 얻고 영의 눈

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며 성령과 교제를 위해선 4차원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만나는 곳이 생각 꿈 믿음 창조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병을 고쳐 달라고 외치나 꿈을 갖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성령은 믿음의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생각 속에서 성령과 교제하고, 믿음 속에 함께하고, 선언 속에서 창조적 비전을 말하면 결국 우리는 비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날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라. 4차원의 영성을 믿어라.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설교가 끝났을 때 나카노제로홀 안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꿈들을 품기 시작한 성도들의 환한 미소가 가득 넘쳐났다.

## ‘2015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 국내외 영적 지도자 설교자로

오는 10월 16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5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도대성회는 ‘꿈과 희망’을 주제로 세계 평화와 국내 경제·사회위기 극복, 선교사명 고취를 염원하는 기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 열린다. 기도대성회에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교회 성장에 영향을 받은 181개국 교회 지도자들

이 만든 글로벌 기독교 단체로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의 목회자 1만7000여명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도대성회는 3부로 진행된다. 1부는 ‘세계 평화’를 구하는 예배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 란짓 아브라함(인도 오순절협의회) 볼크하르트 스피처(독일 베를린교회) 해롤드 까바렐로스(파테말라 엘사다교회) 후나츠 유키오(일본 가나자와 그리스도교회) 목사가 설교자로 나



선다. 2부는 ‘나눔과 희망’을 전하는 장으로 참석자들은 밤 로저스(미국 세계기도센터) 프린스 구네라트람(말레이시아 갈보리교회) 목사 등

의 인도에 따라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정,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꿈과 희망을 전하는 장’인 3부에서는 조목사의 설교 후 참석자들이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